

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

새누리의 진단

-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에 연계한 장학금 지원으로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

새누리의 약속

- 소득 하위 80%까지 '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'을 지원하여,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
 - 소득 1-2분위 : "전액 무상" (100%지원)
 - 소득 3-4분위 : "3/4" (75%지원)
 - 소득 5-7분위 : "반값" (50%지원)
 - 소득 8분위 : "1/4" (25% 지원)
 - 소득 9-10분위 : 든든학자금(ICL) 대출 자격 부여
- ⇒ 2014년 대학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
-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
 - 든든학자금(ICL)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여, 5년내 물가상승률 반영시 실질적 제로화 추진, 군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 면제

새누리의 실천

-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 확보
- 든든학자금(ICL) 제도 개선
-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
-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

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

새누리의 진단

- 대학등록금 못지않게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주거비 부담
- 대학생들이 등록금은 물론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주거안정 대책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철도 부지위에 기숙사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실시하여, 기존 사립대학 기숙사의 1/3 가격으로 기숙사 제공
- 국립대학의 임대형 민자사업(BTL), 사립대학의 용자지원, 국토부(LH) · 서울시의 임대주택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현재 18.3%에서 30.0%로 확대
- 사립대 기숙사비(민자기숙사의 경우 월 28~40만원) 20~30% 인하 유도
-신규 설립 기숙사의 경우 건설비 일부 지원 및 저리 용자 지원

새누리의 실천

- 사학진흥기금 등 대학 기숙사 건립 관련 예산 확대
- 행복기숙사 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

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

새누리의 진단

- 봉어빵같은 스펙기반 채용시스템에서 탈피, 젊은 인재들이 본인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열정과 창의성 중심의 직무평가시스템과 채용시스템 구축 시급

새누리의 약속

- 국가직무능력 표준 구축
 -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하여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제시
 - 고교 이후 직업교육을 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일자리 중심 교육으로 전환
 - 직업교육과 자격의 연계 강화를 위해 '과정이수형자격제도' 도입
 - 교육(졸업장 및 학위), 자격증, 직업훈련 이수 및 직무경력 등이 상호 인정되는 통합적 국가역량체제 구축
-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'직무능력평가제' 도입
 - 채용하는 기관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평가를 토대로 채용하는 한국형 인프라 구축
 - 공공기관 우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
-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
 - 민관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,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 선발
 - 멘토를 통해 양성된 인재를 인재은행 등록하여 취업 지원

꿈과 열정을 지닌 청년들이 마음껏 활약합니다.

청년

새누리의 실천

- 직무능력표준(NCS) 중심 교육과정 개편 예산 지원 강화
- 직무능력평가 인프라 구축
-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방지하기 위한 「고용정책기본법」 개정 추진

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

새누리의 진단

- 복지제도 확충, 안전한 사회 건설 등 100%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·안전·복지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필요
-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, 취업기회 확대

새누리의 약속

- 경찰, 소방관, 복지 분야 등 일자리 대폭 확충
- 공공부문에 컴퓨터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 채용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부문 통신 보안 강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

새누리의 실천

- 교육, 안전, 복지 관련 공무원 단계적 증원
- 공공부문 청년층 채용을 공공부문 평가에 반영

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

새누리의 진단

-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 등 서울과 지역 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우수인재들의 지역대학 진학 기피 현상 심화
- 지방대학의 양적팽창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대학과 비교시, 교육·연구 여건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음.
- 지방대학의 낮은 취업률로 인해서, 우수학생이 지방대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

새누리의 약속

- ‘지방대학 발전사업’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·연구 여건개선과 특성화에 집중투자
- ‘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’ 도입
 - 신규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자로 채용하는 ‘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’를 공공기관부터 확대 시행(기관별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·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등을 통해 지역인재채용 단계적 확대)
 - 국가·지방 공무원 지역인재채용 목표 비율을 상향조정
 - 주요 기업 및 경제단체와 함께 직무능력 중심 채용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 확산 캠페인 추진
 - 직무능력중심의 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대학 차별 해소
 - 지역거점 지역대학별로 산학연 K Valley 창업 클러스터 집중 육성

새누리의 실천

- 지방대학 지원 예산 확보 및 대학평가 방식 개선
-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· 시행
-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 상향 조정

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

새누리의 진단

- 모두가 원하는 것을 공부하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교육 체제 확립

새누리의 약속

- 관련부처·지자체 및 산업체가 함께하는 특성화고 집중 육성
- 제조업 이외의 특수 분야 마이스티고 지정 다양화
- 산업현장 중심 교육과정 편성·운영의 완전 자율화
- 취업을 위한 위탁교육 제도 개선 및 기회 확대

새누리의 실천

- 특성화고 집중 육성 및 위탁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

청년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청년창업 대폭 지원

새누리의 진단

-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 및 첨단산업에 대한 창업 부족
- 창업에 대한 지원 미진, 실패한 자영업자가 제기할 수 있는 환경 미흡

새누리의 약속

-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통한 청년창업가 양성
-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통섭한 융합인재 양성
- 산학 공동연구물의 소유권 합리적 조정,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의무화 등 창조적 인재 보호
-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
-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 활성화
- 콘텐츠 펀드 규모 확대 및 프로젝트 개발 지원
-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'창업기획사'를 설립하고,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층 창업아이디어 발굴, 창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
- 정부와 기업의 공동출연으로 청년창업펀드를 만들어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패자부활 기회 부여

새누리의 실천

-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정비 및 대학 지원 계획 수립
- 엔젤투자관련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 추진
- 콘텐츠 펀드 등을 위한 법 개정
- 청년창업기획사 및 청년창업펀드 설립 및 운영 정책 지원